

신공의 나라 한국 금빛 행진 ... 누구도 막지 못했다

임시현, 여자 양궁 개인전 금메달...단체·혼성 이어 대회 3관왕 4강에 한국선수 3명...룰 변경 등 견제 장치, 실력 앞에 힘 잃어

한국은 역시 '신공'의 나라였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역사는 계속됐다. 한국 여자 양궁대표팀 '에이스' 임시현(21·한국체대)이 지난 3일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막내' 남수현(19·순천시청)을 7-3(29-29 29-26 30-27 29-30 28-26)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집안싸움'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건 임시현은 첫 올림픽에서 '3관왕' 계보를 이었다. 지난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안산(23·광주은행)이 혼성 단체전 초대 챔피언과 함께 한국 하계 올림픽 역사상 첫 3관왕에 등극했다. 임시현은 남수현, 전훈영(인천시청)과 함께 호흡을 맞춘 여자 단체전에서 소우포 접전 끝에 중국을 5-4(56-53 55-54 51-54 53-55 <29-27>)로 꺾고 단체전 우승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임시현과 태극 남자들은 단체전이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등장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진 연패 기록을 '10'으로 이었다. 한국 양궁을 견제하기 위해 룰을 놓고 여러 변화를 줬지만 매년 금메달은 한국 차지였다.

임시현은 혼성 단체전에서 세계최고의 실력을 보여줬다. 김우진과 혼성 단체전에 나선 임시현은 독일과의 결승에서 6-0(38-35 36-35 36-35)의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2관왕에 올랐다. 그리고 남수현과의 맞대결을 통해 3관왕에 등극

했다. 임시현은 결승 시작부터 과녁 정중앙을 맞췄다. 남수현도 10점으로 응수했고, 두 사람은 이후 나란히 9점과 10점을 기록하면서 1세트는 29-29로 끝났다. 1점씩 주고 받은 두 사람은 2세트에서도 나란히 첫발로 9점을 만들었다. 임시현이 이어 10점으로 화살을 보냈고 남수현이 7점으로 흔들리면서 2세트는 29-26, 임시현의 차지가 됐다. 3세트에서도 임시현은 두 발을 10점으로 보내면서 29점을 기록했다. 남수현이 10점으로 시작한 뒤 9점과 8점을 기록하면서 27점, 3세트도 임시현이 챙겼다. 4세트에서 '막내'의 반격이 있었다. 남수현이 모두 10점에 화살을 보내면서 임시현을 압박했다. 임시현도 첫발과 마지막발을 10점에 꽂았지만 두 번째 화살이 9점으로 가면서 승부는 5세트로 향했다. 남수현이 첫발과 마지막 발을 8점으로 보내면서 흔들렸고, 임시현은 2개의 화살을 10점에 꽂으면서 금메달을 명중시켰다. 한편 준결승에서 임시현을 만나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렸던 전훈영(30·인천시청)은 프랑스의 리사 바벨랭과의 승부에서 4-6(27-28 29-27 26-28 29-26 27-28)으로 지면서 메달을 더하지는 못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한국 남수현과의 결승에서 임시현이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깨 탈구에도... '아름다운 마무리'

여서정, 도마 결선 7위

여서정이 연습 때 탈골이 일어났음에도 출전을 강행했다. 아픈 어깨를 잡고 도마 결선 경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2024 파리 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도마에서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던 여서정(22·제천시청)은 경기 직전 어깨를 다쳐다며 결과에 아쉬워했다. 여서정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3.416점을 받아 8명의 출전 선수 중 7위에 머물렀다. 여서정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내 한국 여자 체조 선수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번엔 한국 체조 선수 최초로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했으나 뜻하지 않은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여서정은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경기 두 시간 전 연습하다가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다"며 "부상 때문에 계속 긴장하면서 결선을 치렀다"고 밝혔다. 그 탓인지 도마를 제대로 짚지 못한 여서정은 평소보다 점프의 높이도 낮았고, 착지도 크게 흔들렸다. 여서정은 "예선 때 잘했기에 기권하면 더 아쉬울 것 같아서 일단 경기를 뛰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다"고 했다. 다쳤어도 출전을 강행한 여서정은 "크게 안 다치고 올림픽을 마쳐 그걸 더 다행으로 여긴다"고 안도했다. /연합뉴스

여서정은 올림픽 2회 연속 메달 기대감과 부상 등으로 많이 긴장했지만 "제가 잘 컨트롤해야 했다"고 자책하면서 많이 기대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시니어 무대에 뛰어든 뒤 계속 지켜 본 체조의 전설이자 파리 올림픽 도마 챔피언 시몬 바일스(미국)의 실력에 또 감탄했다던 여서정은 4위에 오른 북한 안창욱(21)을 두고 "연습 때는 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경기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여서정은 연기를 마치고 들어오는 안창욱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려다가 안창욱이 무안하게 지나친 장면을 두고 "제가 (인사) 타이밍을 못 맞춘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여서정은 또 "바일스, 은메달을 딴 레베카 안드라드(브라질)의 기량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 기가 많이 죽었다"고 고백한 뒤 "(부상 때문에) 자신감이 워낙 없어서 기가 더 죽었던 것 같다"고 했다. 우선 좀 쉬고 싶다면 여서정은 "잡은 부상에도 계속 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신 이정식 대표팀 감독님, 코치님들,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여서정은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보다는 우선 2026 나고야·아사히 아시안게임에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한국, 이제는 '펜싱 강국'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왼쪽부터 전은혜, 윤지수, 최세빈, 전하영, 이국현 코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브르, 금2·은1 '역대 최고' 사상 첫 남녀 단체 결승 진출 세대교체 변수에도 실력 입증

한국 펜싱이 '본고장' 격인 프랑스에서 개최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멀티 골드'라는 수확을 남기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4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단체전을 끝으로 한국은 파리 올림픽 펜싱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개최식 다음 날인 지난날 27일부터 이어진 파리 올림픽 펜싱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쉽지 않은 대회가 될 거란 예상이 안팎에서 주를 이뤘다. 직전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출전했던 여자 사브르의 김지연을 비롯 각 종목 대표 선수 다

수가 은퇴하거나 이번 대회엔 나서지 못했다. 여기에 간판 종목인 남자 사브르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오랜 기간 단체전 호흡을 맞춘 멤버 중 절반인 2명이 태극마크를 내리놓으면서 급격한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등 변수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펜싱은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그랑팔레의 꼭대기에 두 번이나 태극기를 올려 자존심을 세웠다. 단일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2개가 나온 건 역대 최고의 대회로 꼽히는 2012년 런던 올림픽(금2·은1·동3) 이후 12년 만이다.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에이스' 오상욱(대전시청)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 2016년 남자 에페의 박상영 이후 8년 만에 개인전 우승자가 나왔다. 오상욱을 필두로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이 호흡을 맞춘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3연

패를 달성했다. 여기에 윤지수, 전하영(이상 서울시청), 최세빈(전남도청), 전은혜(인천 중구청)가 호흡을 맞춘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프랑스를 격파하고 사상 첫 결승 진출과 은메달을 더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사브르의 성과는 돋보였으나 다른 종목의 분발은 속제로 남았다. 한국은 도쿄 대회 맨 남자 사브르와 에페, 여자 사브르와 에페 단체전에 출전권을 획득해 4종목 모두 단체전에서 입상하는 쾌거 속에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따냈으나 이번엔 출전 종목 수와 메달 모두 줄었다. 도쿄 올림픽 은메달 멤버가 그대로 나선 데다 팀 세계랭킹 2위를 달리고 있어서 내심 금메달까지 바라보던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8강 탈락한 것은 특히 아쉽게 남는다. /연합뉴스

유도는 금맥 대신 '부활 희망'

은2·동2·혼성1 메달 5개 수확 2000년 이후 최다 메달 성과 20대 초중반 주축...4년 뒤 기대

한국 유도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메달(5개)을 수확했다. 유도 대표팀은 4일프랑스파리상드마르스경기장에서 열린 혼성단체전을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개인전에서는 은메달 2개(남자 100kg 이상급 김민중·여자 57kg급 허미미), 동메달 2개(남자 81kg급 이준환·여자 78kg 이상급 김하윤)가 나왔다. 그리고 이날 혼성단체전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이번 대회를 메달 5개로 마감했다. 비록 2012 런던 대회 이후 끊긴 금맥을 되살리진 못했지만, 2000 시드니 대회(은 2개·동 3개) 이후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은메달리스트 김민중(23·양평군청)과 허미미(21·경북체육회), 동메달리스트 이준환(22·용인대)과 김하윤(24·안산시청) 모두 20대 초중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4년 뒤를 충분히 기약할 수 있다. 김민중을 제외하고 세 명은 이번이 첫 올림픽 출전이었다. 2020 도쿄 대회 16강에서 탈락했던 김민중은 이번 대회에선 한국 유도 최중량급 선수로는 최초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하윤의 동메달도 2000년 시드니 대회(김성영 동메달) 이후 24년

만에 나온 여자 유도 최중량급 메달이었다. 이날 혼성단체전 동메달은 한국 유도가 여러 계급에 걸쳐 고른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혼성 단체전은 남자 3명(73kg급·90kg급·90kg 이상급)과 여자 3명(57kg급·70kg급·70kg 이상급)이 참여하는 경기로써 4승에 선착하는 팀이 승리한다. 한국은 단체전 6개 계급 가운데 남자 73kg급과 여자 70kg급 출전 선수가 없음에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4-3으로 꺾었다. 김민중, 허미미, 이준환, 김하윤은 이번 대회 '멀티 메달리스트'의 기쁨을 누렸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은메달, 2020 도쿄 대회 동메달을 목에 건 안바울은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걸었다. /연합뉴스